2024 불교도 대법회

왜 수계 · 승보공양법회 인가

삼귀의·오계, 온 국민 지킬 규범

왜 '수계' 받아야 하나

불자 규범 넘어 윤리이기도
오계 실천, 국민 행복 완성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매년 봉행하는 삼귀의오계 수계대법회의 모습.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영취산에 계실 때이다.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은 밧지국을 정벌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었다. 왕은 부처님께 신하를 보내서 '어떻게 하면 밧지족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여쭤보라고 하였다. 신하는 부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밧지국을 정복할 수 있는지'에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신하에게 직접 답하지 않고, 뒤에 있는 아난에게 일곱 가지 질문을 하신다. 그 중에 마지막 내용이다.

"아난아, 밧지국(피정복 국가) 사람들은 아라한을 존경하고, 성자에게 공양 올리며, 어느 나라의 성자가 자기 나라를 찾아오면 그 성자를 존중하며, 공양 올리는가?"

아난이 '밧지국 사람은 수행자와 성자를 잘 모신다'고 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자를 존중하고 공경할 줄 아는 국가라면, 그 나라는 번영만 있을 뿐 절대 쇠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승가(僧伽)와 국가 발전을 동시에 설한 7불퇴법(七不退法)으로 〈대반열반경〉에 전한다. 국가든 승가든 승보인 수행자와 성인에 예의 지킬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보자. 〈육방예경(六方禮經)〉은 초기불교 경전 가운데 하나인데, 재가자가 지켜야 할 예의범절 등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를 설하고 있다. 이 경전은 재가자가 심신(心身)을 청정히 한 뒤에 여섯 방위에 절을 하는 것인데, 동쪽을 향해서는 부모, 위쪽은 승려와 바라문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내용이다. 곧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삼가고 사람 간에도 마찰이 없이 살 수 있는 윤리 기준을 말하고 있다.

앞 경전 내용은 개인이 행복하고, 성자에 대한 존중 의식이 있는 집단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계종에서 불교도대법회를 행사한다. 단순히 불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더불어 발전코자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 이에 행사 시작에 불자로서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새로운 다짐으로 살겠다는 서원이 '삼귀의와 오계'이다. 삼귀의 오계는 불교를 넘어 인간의 윤리·도덕적인 사상이라고 본다.

먼저 삼귀의(三歸依)를 보자. 필자는 불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불자로서 무엇을 믿느냐?' 대체로 사람들의 답변은 '부처님 믿는다. 불교 믿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불법승 삼보를 믿는다'고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35세에 성불하시고, 최초의 제자들인 5비구들에게 법을 설하셨다. 곧 불보·법보·승보가 완벽하게 구성됨으로서 불교라는 종교 테두리가 완전체를 이루었다.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데는 불보·법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승보가 없기 때문이다. 곧 삼위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음 오계(五戒)를 보자. 첫째는 불살생인데, 모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으며, 존중하게 여겨야 한다. 불살생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포함된다. 즉 스토킹,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인권 침해, 갑질 등 비도덕적인 행동을 삼가야 한다. 둘째는 불투도인데, 그 어떤 것이든 남의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무소유 실천인데, 무조건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배분해 널리 나눔을 실천한다.

셋째는 불사음인데, 근자 들어 심각한 범죄가 사음이다. 곧 성희롱 · 성폭력 등 성적으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넷째는 불망어인데, 거짓말을 삼가는 것을 넘어 상대에 진심이 담긴 말을 해주고, 칭찬하며,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삼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불음주인데, 지나친 음주는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다. 또한 바른 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음료나 마약 등을 근절해야 한다.

불교도 대법회에서 실시하는 의식은 부처님 재세시부터 실천하던 방식이다. 즉 불자들이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겠다는 서원을 세운 뒤에 부처님께 수계를 받았다. 둘째, 재가자는 6재일(8, 14, 15, 23, 29, 30일)을 지켰다. 이는 재가자가 일정하게 정한 날에 사찰에 가서 스님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요즘으로 치면 템플스테이 같은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불교라는 종단은 출가자와 재가자 이중구조이다. 승려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서 재가자에게 법을 베풀어 참 삶의 길을 제시한다. 재가자는 승려들이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시와 공양으로 뒷받침해준다.

이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규범이요, 윤리라고 본다. 이렇게만 실천하면 개인이 행복하고, 국가가 번성할 수 있는 길이다.



정운 스님
북촌불교문화연구원장

보시바라밀 실천·완성하는 길

왜 '승보공양'인가

공양=보시, 대승보살 이루는 법
승보공양법회 일상화 필요하다


백중을 맞아 열린 마산 정법사의 승보공양법회.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불교공동체는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또 불교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떤 형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가? 다양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또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마다 모양새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불교공동체가 그리고 불교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삶은 생명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그리고 그 존중과 배려의 실천으로부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기대한다.

9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불교도 대법회는 그러한 장을 불교공동체 내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목적이다. 전통 수행법의 핵심을 공감하고 나누는 간화선 곧 선명상대회와 함께, 전통 수행법이 추구하는 삶을 자기화하는 구체적 실천으로서 오계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가 함께 개최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승보공양법회일까?

삼보(三寶)에 귀의하고 공양하는 것은 불자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승보공양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승보공양이 경전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였던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고려사에는 수백 회 이상의 승보공양법회가 '반승(飯僧)'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억불의 나라였던 조선왕조실록에도 반승(飯僧)의 금지 여부가 조정 대신들의 논쟁거리가 될 정도였다.

달리 말하면 불교도들이 불교도로 살아가면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중의 하나가 승보공양이었고, 그것이 불자의 중요한 실천덕목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웃 대만불교에서는 승보공양법회를 '공승재'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도 하다.

승보공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전으로 〈우란분경〉이 있다. 우란분재 곧 백중의 유래를 설하고 있는 경전이지만, 사실 이 경전이 강조하는 것은 승보공양의 중요성이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우란분재이지만, 그 우란분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여름 안거를 끝마치며 안거 수행하는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는 '자자(自恣)하는 승가에 대한 공양'이기 때문이다. 경전은 이렇게 말한다.

"청정한 계와 성현들의 도가 구족하니, 그 공덕이 끝이 없다. 누구라도 이 자자하는 승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6종(種) 친속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곧 해탈할 것이며, 의식(衣食)이 저절로 이를 것이다."

공양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공경하여 받들고, 공경하여 받드는 대상이 추구하는 바를 스스로도 받아 지니며, 공경하여 받드는 대상을 위해 무엇인가를 제공한다는 보시의 의미이기도 하다.

경전에서 붓다가 말씀하신 공양을 받을 이들은 안거를 마치고 자자하는 승가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아 자신의 삶으로 하기 위한 수행에 전심전력했던 출가수행자들이다. 그들이 받아들인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의 본래적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이 곧 수행이며, 그러한 스님들의 모습에서 불자들은 스스로가 추구해야 하는 자기 삶의 방향성을 배우고 좇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보공양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함께 하는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이끌도록 만드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역사 속에서 반승(飯僧) 혹은 승보공양의 모습이 불교도의 실천 행위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 삶 속에서 내 삶을 불교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승보공양이 제시되었을 것이고, 마침내는 승보공양 자체가 하나의 법회로서 기능하게 된다.

특히 한국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는 불자로서의 첫 번째 실천 덕목으로서 보시바라밀이 강조되어 왔다. 보시바라밀은 육바라밀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보시바라밀의 완성은 육바라밀의 완성이기도 하다. 그 보시바라밀의 첫 번째 익힘의 방법 그리고 완성의 방법으로서 일상의 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실천된 것이 바로 승보공양이고 승보공양법회인 것이다.

이번 불교도 대법회를 계기로 불자들의 일상적인 실천덕목으로 승보공양법회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